

국 제

오바마 “경제난 극복 최우선”

대통령 당선후 첫 기자회견... “경기부양책 서둘러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취임 즉시 경제문제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차기정부 운영방안을 밝혔다.

작인 경기부양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경기부양책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차기 행정부의 각료 인선을 최대한 신중을 기하되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몇 주안에 내각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시카고에서 대통령 당선으로 처음으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10월에 24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들어 120만명이 실직했고 현재 1천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생애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신용경색 위기를 해소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산층 구제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

에 국제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정권인수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바마 당선인과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8일(현지시간) 시카고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극단 조치’ 취할까 대남 압박용 ‘무력 시위’ 폐쇄 단행 가능성 낮아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며 따라 향후 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잇따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 사실상의 ‘무력시위’를 했다.

자신들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배려 살포가 계속되는데 대한 대응이 자 상황에 따라 실제로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에 따르면 북측 조사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나는 결핵권자가 아니다.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거나 “단계 사업의 진전이 느려 2단계 사업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 미뤄 북측은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 대남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일주일 가운데 남측 기술자와 기업주들이 남측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는 목요일을 현장조사일로 꼽은 것을 두고도 남측에 ‘위협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심리전’

의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오바마 시대’ 개막을 맞는 시점에서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순수 중국 기업마저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경우, 북한의 대외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서 대신 ‘무력시위’를 한 것도 개성공단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업임을 반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 인원 철수나 출입 제한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일단 ‘일회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단내 입주기업들과 공장장을 짓고 있는 50여개 업체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티 학교 붕괴 90여명 사망 지난 7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의 페티옹-빌에서 수업 도중 교사(校舍) 붕괴 사고가 발생, 사망자만 90명을 넘어서는 등 희생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당국은 밝혔다. 사고 직후 구조대와 시민들이 희생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 서명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전했다.

이태시 주미대사와 폴 슈나이더 미국도안보부 부장관이 서명한 이번 협정은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이 넘는 구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는 여행자에 대해 특정 범죄행위를 때때로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그와 협의했고, 김정일이 사망한다 해도 장성택은 김정일의 정치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VWP 실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비준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미국 측에서 의심가는 여행자에 대한 범죄정보를 우리 측에 문의하면 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범죄인을 거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 외무부 대표-오바마 당선인측 우호적 분위기 속 첫 접촉 오바마 당선인측과 북한 정부 대표단과의 첫 만남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한미일 ‘안보 토의’ 6년만에- 정례화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6년 만에 ‘안보토의’ 모임을 했으며,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8일 전했다.

“김정일 매제, 장성택이 北 통치” 英 더 타임스지 보도 김 위원장 북한 국방위원장의 외형설 속에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옥션코리아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속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청약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태양열 보일러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해만 뜨면 무한으로 생산되는 태양열보일러로 연료비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면 태양열 온수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DaejinSolar (주)대진솔라 제품문의 및 주문 1600-7480